

분류: 화산귀환 | 유사 | 드림 | 가족관

소월
小月



출생	알수없음
성별	여성
키	8cm
소속	사패런
경력	만인방
	화산
[가족관계 펼치기 • 접기]	
부모	없음
형제	유성(남동생)>행방이 묘연함 소명(언니)> 화산에서 생활 중
배우자	없음
[스포일러]	
부모	장일소
자녀	없음

목차

1. 개요
2. 생애
3. 외모
4. 작중 행적
 - 4.1. 키
 - 4.2. 사패련
 - 4.3. 행동
 - 4.4. 소지품
 - 4.5. 또 다른 세계관
 - 4.6. 타로
5. 인간 관계
 - 5.1. 장일소
 - 5.2. 호가명
 - 5.3. 유성
 - 5.4. 임소병
 - 5.5. 청명
 - 5.6. 소명
6. 여담
7. 어록

[편집]

V 1. 개요

“아빠!”
“아가, 들어가있지 않고 이리 나와있니”
“압바 보려고 나와잇엇서요”
장일소가 소월을 데리고 내부로 들어왔다.
물론 비에 이미 짙게 젖은 후였지만 말이다.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다.
장일소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어른들을 아빠, 또는 엄마라고 불렀을 듯 하다.

장일소의 수양딸

아직 어린 아이로 주변인들에게 켄민이라거나 어린아이 등의 인식이 있지만 강인하고 올곧은 심성으로 머리카락이 잘린 이유도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아는 설이 존재한다.

불의를 눈뜨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며 제 눈앞에서 일어난 불의는 해결하고 봐야한다는 소위 말해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다.

무례한 듯 보이지만 걱정이 많고 주변을 보살필 줄을 아는 아이이며 가끔은 겁이 많고 가끔은 너무 겁이 없다 시피 굴기도 한다.

장일소의 머리를 잡아 뜯을 법한 시건방진 성격도 보유 중이다.



[편집]

Ⅴ 2.생애

영물이다. 동해바다 어디에서 태어나 생을 살던 개복치인 편으로 꽤나 많은 생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 중이며 남궁에서 활동하던 중 머리카락을 잘린 이후로 사패련 아래에 들어간 듯하다.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매면서 한 말이

“아빠들이...미아가 됐어!”

였으니 꽤나 자기중심적이고 뻔뻔한 구석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다.

2년 전 10월 말 쯤 장일소와 호가명의 실수로 왼쪽 눈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편집]

Ⅴ 3.외모

검은 머리, 눈은 짧게 보면 검게 보이지만 자세히보면 꼭 심해를 닮아 반짝거리는 남색과 같은 빛을 띄고 있는데, 햇빛 아래에서 비친 눈을 보면 바다의 파도 포말과도 같은 색이다.

18살 이후 한번 장일소가 머리장식을 부숴먹어서 1년정도 색이 다른 두개의 팔찌를 머리에 달고 다니기도 한다.

[편집]

Ⅴ 4.작중 행적

[편집]

Ⅴ 4.1.키

꿈은 4m 개복치, 영물에 정말 4m 개복치가 가능한 아이지만 장일소의 8cm 발언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8cm로 그저 지내고 있는지 2년 정도 된 듯하다

사실 실제 키는 160cm인데 영물이라 키 조절이 되는지 8cm로 지낼 때가 대부분인 편이다.

[편집]

Ⅴ 4.2.사패련

사패련에 들어오고 넷가에서 빨래도 해보고, 밥도 지어보고, 문서 정리, 문서 작성도 해보지만 머리를 잘 쓰지 못하는 성격에 손재주가 없는 탓에 마지막 취업은 흥건으로써 취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흥건자리도 얼마 지나지않아 어떠한 사건 이후 단전이 망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이후로는 모종의 이유로 장일소의 수양딸의 위치를 얻게 되었으며 사패련에서의 인식은 바보 꼬맹이에서 사패련의 아가씨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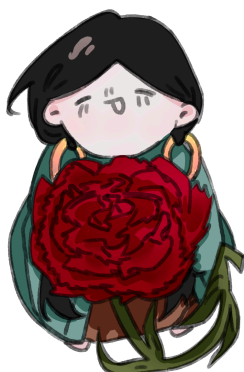
V 4.3.행동

잠이 많은 편이다 하루 평균 8시간, 아주 많다면 하루 12시간 까지도 숙면할 수 있다.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다면 편지로 전하거나 그림을 그려 전하기도 하며 어느 날은 장강 물 온도를 재고 온다며 나갔다가 물에 쫄딱 젖어 울면서 들어올 때가 있으며 워낙 통통 튀는 성격에 예측하지 못할 특이한 행동들을 해보고는 한다.
문을 두드리면 다들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똑똑-” 하고 들어오고 나가며 만인방 내에 8cm 아이가 행동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편지를 좋아한다. 선물보다도 선물에 함께 있는 편지부터 확인해 보는 아이이다.
그러니 무언가 선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물건보다는 편지의 내용부터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되도 않는 일에 어리석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으니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어야...터덜터덜 바보처럼 돌아갈 수 있다. 정말 가끔 고집 세게 나온다면 바닥에 드러누워 뺨깡을 부릴 때도 있다.
취미는 해파리 우물거리기이며 그래도 인간같은 취미를 꼽자면 밤하늘의 별을 세는 것이 취미이다.
아마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보면 그녀가 발견한 밤하늘을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V 4.4.소지품

파란리본 - 호가명이 소월의 머리를 묶어주면서 선물해준 파란 리본이 존재하며 가끔 이 파란 리본을 쓰고 싶을 때면 장일소나 호가명 곁에가서 머리를 묶어달라며 이 파란 리본을 내민다.

하얀 뱀인형 - 인형이지만 실제 걸 가족은 정말 뱀 가족으로 속을 숨으로 채운 뱀가족이다.
어느날 소월이 몸에 두르고 온 하얀 뱀의 껍질을 벗겨 그 속을 숨으로 채운 뒤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설이있다.(설이 아니라 진짜지만)



[붉은색 카네이션]

날짜 감각이 좋지 않은 탓에
어버이날을 놓치지 않으려고 붉은 색 카네이션을
소매에 넣고 다닌다.
물론 가끔 받을 때 시들어 있기도 하지만
한번 시무룩해 하자 시비들이
매일 카네이션을 갈아주어 이젠 매일 싱싱한
카네이션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계약서]

매 해마다 신년맞이 재계약서를 들고온다.
이번 해도 잘 부탁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번 해에는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위해
매 해마다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며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온다.

[편집]

V 4.5. 또 다른 세계관



용왕의 딸의 꼬리가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달는다더라며 수많은 용의 팔이 떠받들고 있는 공주의
용상이 있는 버전이 존재한다.

출처 - 아뉴스데이님

기록을 보면 사실 소월은 만인방이 있기 이전 시절부터
존재했던 기록이 남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꽤나 전설적인 영물이다.

[편집]

Ⅴ 4.6.타로

[출처 - 돌팔이님 타로](#)

[\[편집\]](#)

Ⅴ 5.대인관계

[\[편집\]](#)

Ⅴ 5.1장일소



남궁의 최전선에서 싸움을 임하다 장일소에게 흥미를 가지고 사패련의 아래에 들어오고 난 이후 장일소의 수양딸이 되었다.
장일소 곁에서 자는 것을 꽤나 불안해 한다.
갈아뭇게져서 어느 날 아침에 납작해져서 발견되면 어떡하냐는 것이 이유이다.

[\[편집\]](#)

Ⅴ 5.2호가명



(서사 추후 작성 예정)

[편집]

V 5.3유성

유일한 남동생으로 사패련의 흥건으로 일하고 있다.
소월이랑은 다르게 한쪽은 묶어서 늘어뜨린 소위 수명 머리이다.

[편집]

V 5.4임소병

아직 만난 적이 없는 모양이다
물어본다면 려주님이 하셨던 말을 바탕으로 대충 쥐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편집]

V 5.5청명

어쩌면 소월의 부양육자가 청명일지도 모른다.
소월은 청명은 작은 아빠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청명과와 진짜 만남은 소명과 만나고 단 이후의 일이다.
소명이 화산 구경을 시켜준다하여 소월을 주머니에 넣고 데려가 화산에서 마주하게 된다.

“...이게 왜 여기있어?”

청명은 소명의 주머니에 들어가있는 소월의
뒷덜미를 잡아 주머니에서 빼내며 말했다.

“전에 봤던 괴상한 그거잖아”

“괴상한 그거라뇨!! 전 영물이라고여!! 고 ! 귀! 한 !”

“고귀하긴 개뿔”

이 이후 만남은 장일소와 청명이 만날 때마다
지속되게 된다

청명과 장일소가 만날때마다 소월은 둘을 번갈아보며
청명은 곧잘 엄마, 아빠, 작은아빠 등으로 부르곤
한다.

[편집]

V 5.6소명

매화도 끝무렵에 만난 인연이다.
이때 장강 근처에서 소월이를 발견하고 소월이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장일소와 마주한 탓이다
(like 아기 곰 뒤에서 느긋하게 다가오는 불곰처럼)
소월은 소명을 큰 언니라 생각하고 잘 따른다.

“뭐야, 방금 여기에 귀여운 여자애가 있었는데..?”
소명이 주위를 둘러보자 느긋하게 걸어나오는
패군만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소명의 뒤에서 걸어나오는 청명과 장일소가
마주해버렸고 말이다.
“아빠, 분명 여기에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빠? 화산검협, 너에게 이렇게 큰 딸이 있었니?”
“압바! 언제 가요?”
“...넌 저렇게 작은 딸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편집]

Ⅴ 6.여담

[편집]

Ⅴ 7.어록
